

XIV EDIZIONE SICILIA EN PRIMEUR

지난 4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14번째로 열리는 시칠리아 영프רי미어에 다녀왔다. 마르실라로 시작된 이곳의 와인영토는 이제 다재로움을 벗어나 포착불능의 본질을 일리는데 주목하고 있다. 세계와민시장의 접근도 활기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칠리아 와인업의 현주소를 스캐치한다. 글 이영은 사본 어원, ASSOVINI SICILIA, SOPEXA ITALIA

Thanks to 시칠리아 영프רי미어에 초대받은 안보타니 시칠리아(ASSOVINI SICILIA) 팀과 모든 프로그램을 가이드해 준 소텍사 이탈리아(SOPEXA ITALIA)의 관계자들, 그리고 방문했던 와인너리의 친절함에 고마움을 표한다.





자극히 시칠리아다운 시칠리아 섬

에트루리아인, 로마 공화정에 의해 분리되고 합쳐지고를 반복한 이탈리아 역사는 20개주로 나누어진 지금도 하나로 묶이지 못하는 별다른 그룹만의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 이탈리아 반도의 최남단에 떨어져 있는 시칠리아는 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그 특별한 상상력을 요망한다. 아랍,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독일의 지배를 받으며 그만큼의 혼재물이 아리도 이들의 역사와 한 지락을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시칠리아 안에서도 통일은 힘든 상황이다. 시칠리아 와인의 시작에도 그리스와 영향력이 깊게 배어 있다. A.C. 7-6세기 그리스의 품종과 더불어 알베 델로(Alberico)라는 재배방법이 도입되면서 포도밭은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 후 세상에 시칠리아 와인을 알린 것도 현지인이 아닌 영국 사람에 의해서다. 지금은 DOC 지역으로 정해진 마르살라의 콜리마이드 와성인 마르살라가 그것이다. 영국인이었던 존 우드하우스(John Woodhouse)는 술러라 방식으로 양조한 마르살라를 직접 만들기 위해 마르살라 지역으로 귀향하기도 했다. 1850년에 들어서면서 시칠리아도 나름대로 체계적인 포도재배와 와인양산을 위한 단체를 만들어 와인너리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세타솔리 디 멘피(Scetacci di Menfi)와 진디나 소탈리 디 트라파니(Cantina sociale di Trapani)는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다.

2007년대에 좀 더 구체적인 와인의 생산에 대한 경리가 시작된다. 처음에 양조하였던 국제적인 품종에 대한 생산을 멈추고 토착 품종에 집중하면서, 알코올의 도수를 낮추는 등 양조의 기술에도 심혈한 노력을 시도하였다. 이로 인해 트라파니 지역부터 DOC의 등급으로 출시되는 와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트라파니 지역은 아직까지 전체 시칠리아 와인 생산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곳의 와인



1 수량이 오해된 바람에 마스칼레제 코스타나루
1 일베알에 일식으로 재배되는 레드 타블라
3-4 일베알에 일식으로 재배된 DOCG 지역인 바르올라
4-5 일베알에 일식으로 재배된 바르올라
5-6 일베알에 일식으로 재배된 바르올라

너리의 수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이고, 레이블을 붙여서 출시하는 와인도 20% 안팎이라고 하니 생산량을 차지할 이보다 더 할 수는 있을 것이다. 특히 트라파니의 대표 품종인 네로 다볼라의 최고 산지인 노보(Novo)는 아직까지 네로 다볼라에 대한 연구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세련되고 우아한 네로 다볼라의 지속적인 출현은 이들의 노력의 진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그릴레(Grilie)의 알초피 빈산도 품종만하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마르살라를 만드는 기본 화이트의 와인으로 보면 어지러웠던 그림자는 단독으로 양조되고, 또 오의 숙성을 거치기도 해 다양한 스타일을 선보이고 있다.

트라파니 지역이 시칠리아 와인 생산의 시작이었다면 지금의 관심 지역은 에트나(Etna)로 옮겨왔다. 이곳에서는 네로 다볼라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지역은 레드 품종으로 네델로 마스칼레제(Nero Mascalese), 네델로 카푸초(Nero Cappuccio), 화이트로는 카리칸테(Carricante), 카타르네(Catarrone)가 주된 품종이다. 카타니아 상층에서도 에트나의 활화산의 붉은 열기가 보이는 이 지역은 화산토가 주는 배려와 토착품종의 개성이 영여져 신선하고 또 색다른 와인을 양조한다. 네델로의 특질과 어느 정도 교잡함을 이룬다고 생각하는 네델로 마스칼레제의 양조는 그래서인지 바에르메에서 온 와인 양조가들이 손을 댄 와이너리들이 상당수이다. 시칠리아 영프리트르의 기간에 걸친 소차이 바에르메 마르카피스코의 별가인 가이(Gaja) 와이너리의 안젤로 가이(Angelo Gaja)가 에트나에 포도밭을 사들였다는 뉴스였다. 이 지역이 에트나의 품입만큼 핫한 곳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뜨거운 감자인지는 아직 모를 일이지만, 트라파니의 반대쪽에 위치한 에트나, 메아나(Messina)의 와인 생산에 세제와인 시장이 주목하는 이유는 분명 있을 터. 그 결과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시칠리아 영프리트르에서 만난 생산자들

[제 4개국에서 약 70여 명의 기자들이 참여한 이번 시칠리아 영프리트르의 프로그램 중 하나는 시칠리아의 와인나리를 방문하는 일이었다. 기자들은 각 그룹으로 나누어져 새로운 와인 지역으로 이어졌다. 필자는 트라파니와 마르살라를 위주로 6곳의 와인나리를 방문하였다.



4월 17일 오후 4시 영프리트르에서 만난 알렉산드로 디 캠프로칼레

알렉산드로 디 캠프로칼레 *Alessandro di Camporeale*

파타 와인나리의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알렉산드로 디 캠프로칼레는 1993년 (CDO)였다. 처음에는 지역 와인나리에 포도를 팔다가 2000년부터 알코올 시작 했다. 이곳의 와인재키기로 일하고 있는 베르데르 캠프로칼레(Bercedale)는 "우리는 50ha에서 카타리노, 그릴로, 네로 다벨라, 소베레, 말린, 시라를 재배한다. 특히 시라에 대한 우리의 자부심은 크다. 물론 다른 와인들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시라는 손에 꼽히는 편이다. 또한 시라에 만든 스쿠라 와인도 관심을 받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곳 역시 포도밭은 유기농으로 관리되고 있다.



영프리트르에서 만난 알렉산드로 디 캠프로칼레



발리오 디 피아네토 *Baglio di Pignetta*

발리오 디 피아네토는 몰리노에서 약 20km 떨어진 산타 크리스티나 마를리 DOC 지역인 볼레갈레(Vinacce)에 위치한다. 이곳의 간단한 책임을 맡고 있는 레-노 디 비올라(Vinacce De Sano)는 "우리 와인 나리는 현재 3대에 가족 경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1,000ha의 농경지 중 포도밭은 600ha 정도이다. 몇 년 전 유기농 인증을 받고 포도밭을 관리 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테루르, 비디 베르데, 비오나페, 네로 다벨라를 재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리오 디 피아네토는 와인 이외에도 올리브유 생산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3월 17일 오후 4시 영프리트르에서 만난 알렉산드로 디 캠프로칼레

프란체스코 디 스파다포라 *Don Principi di Spadafora*

아르모 리카스의 컨셉으로 인해 알려진 프란체스코 디 스파다포라는 올 DOC를 유기농과 바이오디야나리 농법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테리블에 인증 마크를 표시 하고 있다. 이곳의 오너인 프란체스코 스파다포라(Franco Spadafora)는 "우리 포도밭 은 알기모, 노로 등지에 흩어져 있다. 또한 다른 지역에 새로운 포도밭을 할 계획이 있고, 알코올은 모든 와인이 시라로 물론 기타는 전통식을 따른다"고 설명했다. 오리시노다 훌륭한 손님을 보러 온 프란체스코 오너의 케노로 마텔라 와인을 시음해볼 수 있었다.



4 테누타 라피탈의 와인 저장고



테누타 라피탈라 Tenuta Rapitala

테누타 라피탈라 Tenuta Rapitala는 107년째 와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프랑스의 공작이 이곳의 발기인으로 설립된 후 1998년 그로르프 재단이 되었다. 현재는 180ha에서 3억 2천만 병을 생산하고 있다. 미국 와인의 대가인 실비오 카론제(Silvio Coronei)는 "와인-세계 기술과 고품질의 재료가 많이 이루어졌다. 특히 와인 품질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현재는 이탈리아에서 수출을 많이 하는 와인사로 꼽힌다. 약 30%를 수출하고 있으며 프랑스, 독일, 미국, 영국 북유럽 중에는 스칸디나비아 빈도가 큰 거래처이다"라고 말했다.



5 페우도 디시사 와인 단지
페우도 디시사 와인 단지 그로 가족들



페우도 디시사 Feudo Disisa

가족경영 와이너리로 100%를 소유하고 있다. 네로 디볼레, 카타라도 인 줄리아, 그릴루를 주로 재배한다. 이곳의 전통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페리오 디 로렌조(Ferrio di Lorenzo)는 "연간 약 750,000병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내에서의 소비가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게도 수출을 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전부터 버려졌던 테리코네(Terico) 품종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탈리아를 만드는 데 새로운 품종이 아닌 와 근대 우리 이탈리아도 단독으로 영조하는 와이너리가 몇 곳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아지엔다 아그리콜라 알로 Azienda Agricola Rallo

1990년에 설립된 알로 와이너리는 처음에는 이탈리아의 모든 농산물을 파는 일을 했었다. 20년 전 이탈리아 와인을 생산하면서 본격적인 와이너리 형태로 추진하게 되었다. 알로 와이너리의 모든 일을 총괄하고 있는 안드레아 베스코(Andrea Vesco)는 "처음에 이탈리아에 처음부터만 지은 와인만 와인 생산이 대부분이다. 특히 카타라도의 화이트 와인은 값 비싼 코스타의 테리코네와 여러 번 오를 정도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 팀들은 이곳의 카타라도 2011, 2012, 2013, 2015를 비티컬로 테스트해 볼 수 있었다.



6 아지엔다 아그리콜라 알로의 와이너리 대표인 안드레아 베스코





시칠리아 와인의 발견, 14번째 시칠리아 임프리미르

1885년, 플라네타의 디에고 플라네타(Diego Finetta), 돈나부카라의 자코모 발로(Giacomo Ballo), 마스카 달메라라의 루치오 마스카 달메라라(Lucio Tasca d'Almerita)는 시칠리아 와인의 품질을 높이고 해외시장의 진출을 위해 협회를 만들었다. 바로 아소비니(Assovin)가 그것이다.

아소비니는 가족경영 와이너리로 코도발의 원리와 양주가 안정되어 세계시장에 진출하기에 완벽한 조건을 갖춘 곳을 대상으로 회원 모집하였다. 18년이 지난 지금 75곳의 와이너리가 이권에 소속되어 있으며 시칠리아 와인의 품질은 물론 해외시장 개척에 앞장서고 있다. 아소비니는 이것 이외에도 시칠리아 와인을 시장에 출시 전 미리 시음해 볼 수 있는 '시칠리아 임프리미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올해로 14번째 맞는 행사가 지난 4월 29일 시칠리아의 카타니아 라 디제투라(Raddogura) 정원에서 열렸다. 아소비니의 대표 프란체스코 페레리(Francesco Ferreri)는 "시칠리아의 환경을 생각하는 아

소비니는 임프리미르의 행사를 이곳 라디제투라 정원에서 실시한다. 이곳은 매년 이 시기에 가장 페스티벌이 함께 열려 시칠리아의 독특한 나무 열매지역의 정물 등을 관람하며 와인을 시음할 수 있어 환경적으로 매우 만족스럽다. 이번 시칠리아 임프리미르에는 49개의 와이너리가 참가한다. 현재 시칠리아의 와인은 발전 단계에 있다. 우리는 시칠리아 와인을 해외에 알리는 일에도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시칠리아의 음식과 와인 그리고 작안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이곳의 문화를 알리고 있다. 현재 110개의 국가에 시칠리아 와인이 소개되고 있다. 또한 2007년부터는 그릴로와 네로 다블리에 대한 DOC 지역의 공기에 대한 계획에 동참하고 있다"고 인사말을 남겼다.

시칠리아 임프리미르 2017은 총 49개의 와이너리가 참가하여 2005 면적지의 와인들을 선보였다. 시음은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이어졌으며 그릴로, 네로 다블라, 시칠리아의 스위트 와인에 대한 마스터 클래스도 열려 참가자들의 열띤 반응을 얻어내었다. W



시칠리아 영프รีเม르 2017 참가 와인너리

ALESSANDRO DI CAMPOREALE

ASSULI

AGRICOLA GREGORIO DE GREGORIO

AZIENDA AGRICOLA TORNATORE

BAGLIO DEL CRISTO DI CAMPOBELLO

BALIO DI PIANETTO

BARONE DI VILLAGRANDE

BARONE SERGIO

BENANTI

CANTINE COLDSI

CANTINE EUROPA

CANTINE STEESOLI

CARUSO & MININI

COSTE CHIRLANDA

COTTANERA

CUSUMANO

DONNAPUGATA

DUCA DI SALAPARUTA - CORVO-FLORIO

FAZIO CASA VINICOLA IN ERICE

FEUDI DEL PISCOTTO

FEUDO ARANCIO

FEUDO DISIA

FEUDO MACCARI

FEUDO MONTONI

FEUDO PRINCIPE DI BUTERA

FIRRIATO

FONDO ANTICO

GIROLAMO RUSSO

GRACI

LE CASENATTE

MAGGIOVINI

MARCHESI DI SAN GIULIANO

MASSERIA DEL FEUDO

NICOSIA

PALMENTO OSTANZO

PIETRADOLCE

PETER VINDINO MONTECARRUBO

PLANETA

RALLO AZIENDA AGRICOLA

SPADAFORA DEI PRINCIPI DI SPADAFORA

TASCA D'ALMERITA

TENUTA DI FESSINA

TENUTA GATTI

TENUTA GORCHI TONDI

TENUTE LOMBARDO

TENUTE RAPITALA

TERRE DI GIURFO

VALLE DELLACATE

ZIGOLA